수능국어 핵심 도구 총정리

1. 국어 학습의 목표

- [지문 독해력] 읽고, 멈춰서, 생각한다. 무엇을 말하는지(What), 왜(Why) 그런지, 어떻게(How) 될지 이해하고 납득한다.
- [선지 판단력] 독해한 정보를 토대로 선지의 정오를 의심하고(추론), 명시적 근거를 확인(서치)하여 답을 확신한다.
- [실전 운영력] 80분의 시간 압박이 들어오는, 긴장된 상황에서도 평소 실력을 발휘하고, 시간과 멘탈을 관리한다.
- [개념·어휘] 먼저 알아두어야 할 지식들은 최대한 확보해둔다.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'몰라서' 틀리는 일은 없게 한다.

2. 지문 독해 도구 (독서)

- [납득·처리] 제시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 '당연하네', '그럴 만하네', '그렇겠네' 등의 반응을 최대한 보이려 한다. 잘 안 되면, 표면적 의미라도 처리하여 표시·메모로 요약·정리한다.
- [추상·구체] 복잡하고 난해한 텍스트를 '나만의 말' 또는 '이미지'로 바꿔서 받아들인다. 구체적으로 나열된 정보는 추상적으로 요약하고, 추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구체적인 수치·사례를 들어 이해한다.
- [연결·구분] 유사한 범주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묶어주고, 대립하는 범주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나누어준다. 같은 흐름에서 제시되는 것은 같게, 다른 흐름에서 제시되는 것은 다르게 바라본다.

3. 지문 독해 도구 (문학)

- [상황·심리] 문학 작품에는 잉여 정보가 많음을 알고, 핵심 주제(중심 상황·심리)에 따라 독해를 진행하도록 한다. 이때, 각 인물이 가지고 있는 중심 심리를 파악하고, 이에 기반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요약한다.
- [표면·이면] 글자에 담겨 있는 상징적·함축적 의미를 잘 모르겠을 때는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, 글자부터 똑바로 읽는다. 스스로 도출해낼 수 없는 이면적인 의미는 선지에 맡긴다.
- [연결·구분] 유사한 범주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묶어주고, 대립하는 범주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나누어준다. 같은 흐름에서 제시되는 것은 같게, 다른 흐름에서 제시되는 것은 다르게 바라본다.

4. 선지 판단 도구

- [추론·의심] 선지를 가볍게 쭉 읽어본다. 지문의 주제·핵심과 선지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높은지 낮은지 따진다. 관련성이 높을 경우 해당 선지는 적절할 가능성이 높고, 반대인 경우 해당 선지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.
- [서치·검증] 지문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정답을 확신한다. 선지의 참·거짓의 근거가 되는 '글자'를 찾는다.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답을 결정짓지 않는다.
- [분절·판단] 하나의 선지가 꼭 하나의 물음만을 가지지는 않는다. 선지가 길고 복잡할수록 하나의 요소씩 끊어가며, 차근차근 분절적으로 판단한다.

5. 실전 운영 도구

- [차분하게 독해하기] 평소의 0.5~0.7배속으로 읽고, 멈춰서 생각한다. 그래야 평소에 하던 생각을 할 수 있다.
- [분류하며 전진하기] 1~2번 봐서 모르겠으면 바로 ☆표 문항으로 분류 후, 전진한다. 절대,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.
- [중요하면 정리하기] 중요한 내용들은 간략하게 여백에 정리하며 읽고 푼다. 기억에만 의존하려 하면 안 된다.
- [꼼꼼하게 확인하기] 감으로만 정답을 결정하지 않는다. 정답 선지만큼은 지문에서 명시적 근거를 확인하여 표시한다.
- [자신있게 운영하기] 쫄지 않는다. 모든 것은 예견했던 상황이고, 그 상황마저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강하게 자신한다.

+ 선지 구성 원리

- [상충] 지문과 내용이 반대되는 경우, 선지는 부적절하다. (A → ~A)
- [무관] 있지 않은 말을 언급하는 경우, 선지는 부적절하다. (∅ → A)
- [호응]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호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, 선지는 부적절하다. (A이면 B → A이면 C)
- [원인] 제시된 원인이 잘못된 경우, 선지는 부적절하다. (A 때문에 B → C 때문에 B)
- [선후] 앞뒤 순서가 잘못 뒤바뀐 경우, 선지는 부적절하다. (A에서 B → B에서 A)